

디자인을 더하다

‘거시기, 머시기’ 테마전시부터 디자인 역사까지
주요 미술관·갤러리 디자인비엔날레 후원전

‘올 가을 광주가 디자인과 미술에 빠져든다.’
광주·전남 지역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에 맞춰 디자인과 다양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후원전을 개최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인 ‘거시기, 머시기’를 테마로 한 미술 전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연장선상에 놓여 디자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까지 다양하다.



정운학 작 'Buddha'



‘사랑?? 사랑!!’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 12~14일 정기공연

광주 여성 연출가들, 여배우를 만나.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이하 여·우·회)가 정기 공연으로 안톤 채홍 단편전 ‘사랑?? 사랑!!’을 무대에 올린다. 12일~14일 오후 7시30분 공연1번지.

양정민씨가 연출을 맡은 단편은 ‘곰’은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젊은 여성이 또 다른 사람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노희설·고난영·황옥선씨가 출연한다. 정문희씨가 연출하는 ‘청혼’은 소심한 노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기까지 과정을 그리고 있다. 출연진은 정경아·이현숙·김수원씨다.

두 작품 모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1995년 출범한 여우회는 ‘달님은 이쁘기도 하셔라’, ‘분장실’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으며 아동복지시설을 방문, 무료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10-2635-28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근호 작 'The Picnic'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센터

내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센터(소장 김용의 일문과 교수)는 6일 오후 전남대 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제9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일본국제교류기금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호남 지역과 한일 문화교류’다.

1부에서는 노루라 신이치 게이오대학 교수가 동방지중해 문화권의 기층문화속에서 호남 민속 문화가 차지하는 위치 및 동아시아적 의미를 제시하는 기조강연을 하며 2부에서는 이규수(가천대), 임영진(전남대), 가나즈 히데미(고려대), 김성은(전남대) 교수가 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김용의 교수의 사회로 무라카미 가즈히로(에히메대학), 정성일(광주여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등이 함께 하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문의 062-530-32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11월10일까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특별 기획전 ‘만물상·사물에서 존재로’를 연다. 현대미술에서 사물이 지닌 다양한 존재 방식을 통해 예술과 비(非)예술, 예술과 일상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전시다. 고근호, 마C, 방명주, 성진기, 이매리, 이세경, 이진경, 정운학, 정재철, 최정화, 황연주씨 등 모두 19명의 작가가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등 1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사물의 기억’, ‘일상의 변용’, ‘사물의 언어’ 등 3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 ‘사물의 기억’에서는 사물의 수집과 재조합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개인의 컬렉션 등을 소개한다.

‘일상의 변용’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이 미술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기발하게 변신하는지를 보여주고, ‘사물의 언어’는 오브제를 개념적 발상을 동원해 변형시켜 예술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문의 062-613-7114.

가구 디자인에 혁명을 불러일으킨 거장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담미술관은 6일부터 23일까지 ‘아터퍼니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거시기, 머시기’라는 모호한 언어 속에 감춰진 공감 정서를 디자인 언어로 제시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테마와 맥을 함께한다. 디자인 역사에서 변곡점을 이루었던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웬델 캐슬(Wendell Castle), 론 아라드(Ron Arad), 최병훈씨의 작품 15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산업디자인자 에토레 소트사스의 ‘Carlton’(1981)은 눈여겨 볼만한 작품이다. 선반과 책장이 한데 모여 기하학적 형상을 이루는 이 작품은 노랑, 파랑, 빨강 등 대비되는 색 선이 가구의 기능성을 넘어 즐거움을 준다. 문의 061-381-0081.

은암미술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미래사회의 융합적 가치 창조에 대해 생각해보는 융합형 예술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아름다움 그 이상의 놀라운 빛’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융복합 미디

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김진화, 노은희, 진시영, 정운학, 정선휘, 안유자·한민정(융합)씨가 초대됐다.

진시영씨는 미디어의 차가움을 인간적 감성으로 녹여냈고, 정선휘씨는 풍경에 스며드는 빛으로 희망을 담았다. 불상의 미소와 LED 빛을 결합한 정운학씨의 작품과 서로 다른 장르의 작가 안유자·한민정씨의 공동작품도 인상적이다. 문의 062-231-5299.

갤러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갤러리 아크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후원 전시를 선보인다. 갤러리 아크는 10월30일까지 ‘Anything Fun, Something Pop-유쾌한 것이기, 흥겨운 것이기’전을 연다. 유쾌하고 즐거운 팝아트의 감각적인 요소를 디자인과 일상 속 즐거운 미술로 부각시킨 전시다.

전시는 고근호, 신양호, 주대희씨가 참여하는 1부 ‘Fun, Fun, Fun’(9월30일까지)전과 2부 허옥씨의 ‘Sweet pop’(10월1일~10월30일)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부는 평범한 일상 속 사물들을 작가만의 창작물로 재탄생시킨 독특하고 기발한 전시다. 고근호씨는 영웅과 우상들의 새로운 모습을 조각 작품으로 선보이고, 신양호씨는 예술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갈치와 고등어 작품을 전시한다.

‘Sweet pop’은 달콤한 색깔의 다양한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퍼즐이 즐거움을 주는 전시다. 문의 062-671-1238.

/김경민기자 kki@



에토레 소트사스 작 'Carlton'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Dunlopillo
Feel the Difference

던롭침대 & 온열/안마침대

소파 앤틱/모던

식탁/TV장

자하 2층~5층 가구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 1899-0240